

현장시선



김정도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사무국장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이 의도했던 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현 기후부)가 노골적으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없애려던 이 정책이, 내린 사태와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줄 알았으나 도리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된 셈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폐기물

윤석열 정부의 '보증금제 후퇴', 이재명 정부 마침표 찍나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체 자율 시행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말 효용성이 없는 제도였을까?

결코 아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를 명확히 증명해 냈다. 실제로 2022년 12월 제도 시행 당시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반 환율은 이듬해 3월 30%로 상승했고, 6월 이후 50%를 넘어 8월에는 70%를 돌파했다. 이러한 성과는 제도 시행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준 제주도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을 선택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나선 소비들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

로 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움직였다. 제도의 전국화를 포기하는 행보를 이어감은 물론,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면서 보증금제 이탈을 가속했다. 심지어 특정 민간단체를 앞세워 제도를 폐기하려는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계획이 폭로되기도 했다. 여기에 여당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로 시행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대표 발의되면서 제도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골적인 흔들기 속에 제주에서 풀피우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시들게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도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제도를 지속하려는 제주도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 덕분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기후부에서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 이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선순환할 수 있음을 이미 입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훈들고 엎으려 했으면서, 마치 소비자와 기업의 불편함 때문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는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제도가 붕괴하고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주도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포함한 일회용품 제한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2040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제대로 된 발걸음을 내딛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틀리지 않았음을 끝내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지방공기업 본분 망각한 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가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 복지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3년 1월 이후 개발공사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개발공사는 내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직원에게 제주삼다수를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임직원이 얻은 금전적 이익은 8493만원이다. 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훈련과 직무 관련 외부 위탁교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임에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아 1억2400만원을 지원받지 못했다. 사회공헌사업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제주삼다

수재단을 통해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우회 지원했고,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된 마을발전기 금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삼다수 물류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계약해지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26건과 신분상 조치 5명의 처분이 이뤄졌다.

개발공사는 제주도 산하 지방 공기업이다. 지난 1995년 제주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설립됐다.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업무처리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개발공사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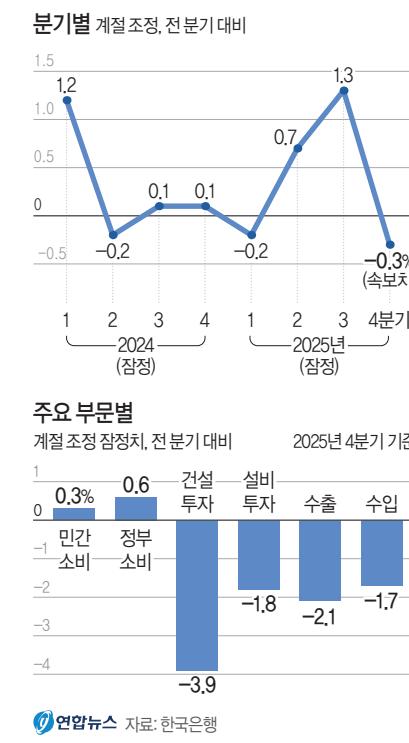
또 하나의 런케이션 '제주 농어촌유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함께은 제주 농어촌 유학'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농어촌 유학'은 도시 학생에게 제주의 자연과 연계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학생에게는 매월 유학경비가 지급되고 학교에는 유학생·재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비가 지원된다.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 체류형' 뿐만 아니라 학부모 중 1인 고양이 제주이며 조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고향 품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유학생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의 확보이다. 학교가 유학생을 받고 싶어도 주거지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자치도가 능촌지역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 많은 유학생들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가 더 많은 지원과 함께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할 때다.

그래픽 뉴스

경제성장을 추이 실질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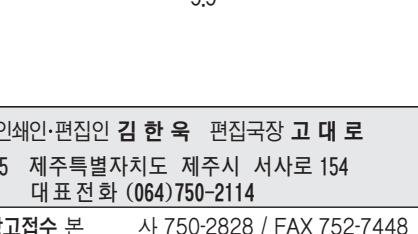


연합뉴스 자료: 한국은행

연도별 계절조정, 전년 대비



김성준
제주서부경찰서 수사자지원팀장 경감



공공기관 직원 사칭 사기 주의해야



김성준
제주서부경찰서 수사자지원팀장 경감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공식적으로 거래하던 공공기관, 공무원이 아니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좋다.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개인전화나 문자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개인이나 업체에 물품 구매를 지시하지 않으며,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특정 업체를 소개해 준 후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공무원의 위치 명함과 특정 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매 관련 참고용 사진을 보내 피해 상공인에게 신뢰감을 갖게 한다.

실제 공무원인 것처럼 명함뿐만 아니라 위치한 공문서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행사 준비나 긴급 물품 확보, 예산 집행 마감 등을 이유로 선결제나 대리결제를 유도한다.

개인 휴대전화로 구매를 요청하거나 과도하게 긴급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은 우선 의심 하시기 바란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응답하거나 결제를 하지 말고, 해당 도청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자 등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명함, 문서를 신뢰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 직원사칭 사기는 조금의

의심과 확인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 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halla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 배달 750-2315

독립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 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사의 말씀

한림로타리클럽 제30대 회장 조은덕(초록우산어린이재단제주후원회장·향년 6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벌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1월 23일

배우자 김민숙

아들 조현민

딸 조예은 사위 서정우

국제로타리 3662지구

로타리 한림로타리클럽 회장 고창문 회원 일동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점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호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례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국일보 광고문의

750-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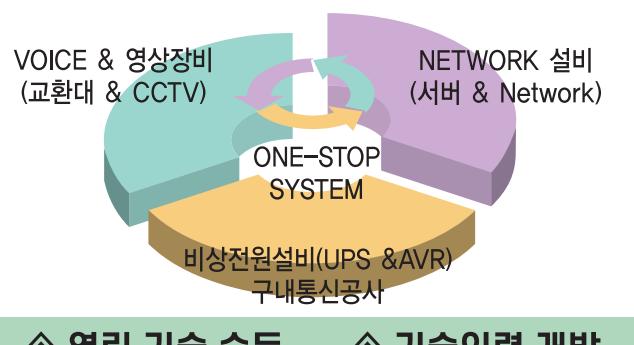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 (064) 722-0992, FAX (064) 725-0993